

조선후기 원림 석파정(石坡亭)의 공간변화양상에 관한 고찰*

이원호* · 김동현* · 김재웅* · 최종희**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 **배재대학교 원예조경학부

A Study on the Aspect of Space Change to Seokpajeong garden(石坡亭) in the Late Joseon Dynasty

Lee, Won-Ho* · Kim, Dong-Hyun* · Kim, Jae-Ung* · Choi, Jong-He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Division of Horticulture and Landscape Architecture, Pai Chai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s to comprehend that Seokpajeong garden for aspect of space change. Spati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transfer of ownership are classified as period. And investigate the aspect of space change in Seokpajeong garden based on literature and painting, newspaper, photo.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Investigate the construction and change of Seokpajeong garden. Accordingly, spatial characteristics of Seokpajeong garden are classified into three period. 1st period is Kim-Heung Keun owned Samgyedong-jungsa garden. 2nd period is Daewongun hold Seokpajeong garden. 3rd period is damaged original form of Seokpajeong garden from Korean War to current time inclusive.

Secondly, Kim-Heung Keun owned Samgyedong-jungsa garden has characteristics of water system centric space and many buildings. In addition accept foreign culture like chinese pavilion and Byeoldang Villa. and plant unique flower and leaf in garden.

Thirdly, According to Seokpajeong garden folding screen, Daewongun owned Seokpajeong garden accept organization of space in Samgyedong garden. But different locations of Sarangchae in folding screen means possibility of move building to current position. So, additional historical research is required with representation of chinese pavilion location.

Fourthly, Seokpajeong garden was damaged from original form to frequent changes of ownership. Transform of geographical features and water system as well as Anchae and Sarangchae, back side of a outbuilding are only the remained among many buildings. Also, Seokpajeong garden is more fell to the subsidiary facility of Seoul Museum than Wonrim. Therefore restoration and recovery of original form are urgent.

Key Words: Landscape change, Samgye-dong-jungsa garden, Seokpajeong garden folding screen, Seoul art museum, Wonrim

국문초록

본 연구는 석파정의 공간변화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원림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공간의 특성을 시기별로 분류하고 관련 문헌 및 도상자료, 기사, 사진 등의 분석을 통해 각 시기별 변화양상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석파정의 조영실제 및 소유주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공간특성을 시기별로 구분한 결과 3시기로 분류되었다. 1기는 김흥근 소유의 삼계동 정사가 이에 해당하며, 2기는 대원군이 석파정을 소유하였던 시기를 들 수 있다. 3기는 석파정의 원형이 변질되는 시기로 한국전쟁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로 구분하였다.

* 본 연구는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의 ‘2015 한·중·일 명승의 보존·관리 협력을 위한 정책개발연구’(과제번호: NRICH-1505-A14F-1)결과의 일부로 작성되었습니다.

† Corresponding Author : Choi, Jong-Hee, Division of Horticulture & Landscape Architecture, PaiChai University, 14 Yeon Ja 1 Gil, Seo-gu, Daejeon 302-735, South Korea, Phone: +82-42-520-5918, E-mail: jhchoi2000@pcu.ac.kr

둘째, 김홍근 소유의 삼계동 정사를 살펴본 결과 계류 중심의 공간구성 및 다수의 건조물을 경영하는 특성을 지니며 중국풍 정자 및 별당채의 도입 등 외래문물의 수용양상과 함께 기화요초를 다수 식재하였다.

셋째, 석파정도병풍을 소재로 확인되는 흥선대원군 소유의 석파정은 기존 삼계동 정사의 공간구성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이나 공간의장이 집중되는 사랑채 위치의 상이함은 석파정도병풍의 제작 이후 현재의 위치로 이전되었을 가능성 또한 고려해야할 사항으로 중국식 정자의 표현위치와 함께 이에 따른 추가적인 문헌의 고증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근대의 석파정은 잦은 소유주의 변경에 따라 이전시기에 비해 상당부분 원형에 훼손되었고 지형이나 수계의 변형뿐만 아니라 건조물 또한 사랑채나 안채, 후면의 별원만이 남아있으며, 오늘날 원림유적이라기보다는 서울미술관의 부대시설로 전락하여 이에 대한 환원과 함께 원형복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주제어: 경관변천, 삼계동정사, 서울미술관, 석파정도병풍, 원림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조선후기 조성된 한양의 원림은 이전시기 산림이나 강호에 은거하는 방식과 달리 조영자가 취득한 권력과 경제력을 기반으로 도성 안의 경승지를 취하는 동시에 자신의 이상향을 구현하고자 하는 시도로 이어졌다. 이는 당시 상류층의 향유문화가 내재된 공간으로 원림의 조영자, 조영시기의 추적은 원림의 물리적 형태에 대한 문화적 상관관계를 밝혀내는 양식론상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으며[1], 간학문적 접근과 문헌 등의 자료 발굴을 통한 전통공간의 원형경관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 중 석파정은 과거 한양에 조성된 원림으로 뛰어난 경관뿐만 아니라 외래양식과 궁궐의 양식이 혼재되는 특성을 지니며, 당시 최상위 권력층이 조성하고 영유하였던 공간으로서 조선 후기 한양원림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960년대 근대화 과정에서의 도시구조 변화, 재산권 분쟁에 의한 소유주의 변화 등을 거치면서 그 원형이 변질되었는데, 특히 원형에 대한 논의가 배제된 무분별한 정비 사업은 현재의 모습이 자칫 원형으로 오인될 수 있는 소지 또한 내포하고 있어 원형경관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복구·복원 등에 대한 조정이 시급한 실정이며, 이에 따른 원형의 논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석파정 관련 연구는 고정원 발굴의 측면에서 조영실제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었는데, 조영자와 형태, 공간구조를 다룬 Yoo et al(1989)의 연구[2]를 필두로 Lee(1992), Chung(1996)의 연구[3][4]에서 조영시기의 추정, 공간구성에 대한 고찰 등이 이어져 왔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원림유적의 교란, 구성요소의 비영속성 등의 제약은 제 현상의 고찰이라는 점에서 원림 구성요소에 대한 규명에 대한 한계점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은 과거 원림 유구의 발굴 외에도 조영자와 관련된 인문학적 해석, 원림 조영에 대한 문헌의 분석 및 고증 등

최근 원형 파악을 위한 조경학 분야의 연구동향과 함께 석파정 관련 기록들을 통해 공간구성 및 공간구성요소를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를 통해 보완되고 있다.

Lee et al(2006)은 소치 허련(小癡 許鍊, 1808~1893)의 저작 『소치실록(小癡實錄)』을 중심으로 관련 기록과 인물들에 관한 조사, 인터뷰 및 현장조사를 통해 시각구조 및 공간체계를 살펴본 바 있으며[1], 종로구청에서는 2010년 석파정 정밀실측[5] 및 석파정 별당을 대상으로 정밀실측조사를 수행하였다[6]. 이를 토대로 Ahn(2012)은 석파정 내 다양한 종류와 문양의 벽체에 주목하여 운현궁과의 관계성을 제시함으로써 조선 후기 상류주택으로서 석파정이 지니는 가치를 제고하였으며[7], Kim(2012)는 사진자료의 분석을 통해 현재 이진된 석파정 별당의 원형은 석파정 내에 위치하였음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원형 복원안을 도출하였다[8].

이외에 조선후기 원림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석파정을 포함하는 연구로 Kim(2008)은 조선 후기 경화세족의 원림의 조영 실태를 살펴보기 위한 대상으로 현존하는 별서 원림 중 석파정을 연구대상으로 포함시켰으며[9], Lee et al(2014)은 조선후기 세도정치의 핵심세력인 안동김씨의 원림을 파악하기 위한 재료로 호호정과 함께 석파정을 제재로 공간구성상의 공통적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10].

이와 같은 연구는 현존하는 공간특성을 토대로 석파정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고 있으나, 연구과정에서 나타난 과거 경관에 대한 공간구조의 불확실성은 연구의 한계로 지목하고 있다. 또한 문헌분석을 통한 과거 공간의 전이체계와 현재 석파정의 상이함은 진정성 계승의 측면에서 원형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원림의 경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전해 온 물리적 실체가 적게 나타나는 한계성[11]은 과거의 원형을 복원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원림을 대상으로 경관변화양상을 살펴보는 과정은 조영자의 변화, 사회·문화적 요인에 따라 변형된 공간의 층위를 구분함에 따라 원형경관을 기준으로 공간구성이나 공간구

성요소의 진정성 계승여부, 조성시기의 추적 등의 흔적을 파악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석파정을 대상으로 과거 문집이나 서화 등에서 나타나는 공간구조 중심의 변화양상을 시기별로 분류하고 해당시기의 공간체계 및 원림의 구성요소를 고찰함으로써 석파정의 원형을 도출하는 데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지

석파정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암동 산 16-1번지에 위치한 조선 후기 원림으로 석파정이 위치한 삼계동(三溪洞)은 서울 성곽 북측 외곽에 위치한 지역으로 수려한 산수와 계곡을 배경으로 거암(巨巖)과 장송(長松)이 많아 예로부터 도성의 경승지로 꼽혔던 곳에 해당하였다.

석파(石坡)라는 원림의 명칭은 흥선대원군이 전방에 조망되는 인왕산의 모습이 모두 바뀌어 구성되었던 것에서 명명되었으며 자신의 호 또한 석파로 바꿀 정도로 수려한 자연경관을 지니고 있다. 현재에도 낮은 구릉을 배경으로 계곡의 노송, 단풍나무 등과 어우러진 경관을 지니고 있어 조선 후기 조성 이후 현존하는 원림으로서 그 가치가 높다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석파정은 서울시 보호수로 지정된 석파정 서측의 노송과 함께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26호로 지정되었으며, 석파정 별당은 '대원군별장'이라는 명칭으로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23호로 지정되어 보호, 관리되고 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석파정의 공간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한 경관변화

과정을 추적하기 위하여 변화의 주요시기를 분류하고 이에 대한 각 시기별 공간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대상지 연구의 시간적 범위로 석파정 조영과 관련하여 공간구성의 특성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는 시기에서부터 현재로 포함하였으며 연구의 재료로서 관련 고문헌 및 도상자료, 기사, 사진 등을 파악하였다(Table 1). 특히 『소치실록(小癡實錄)』과 『유북한기(遊北漢記)』는 저자가 직접 석파정을 방문하고 이에 대한 공간의 묘사가 비교적 상세히 기술되어 있어 당시 석파정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으며, 『석파정도병풍(石坡亭圖屏風)』은 석파정을 대상으로 제작된 병풍으로 좌측 하단에는 병풍의 마지막 폭 왼쪽 아래 구석에는 '이한철인'이라는 백문방인이 있어 조선 말기 화가 이한철의 작품임을 알려준다. 석파정도병풍에 그려진 석파정은 동궐도와 같이 조감형식의 구도를 보이고 있으며, 건조물의 배치나 수목의 식재뿐만 아니라 수계나 원림 내 시설물까지 표현되어 있어 석파정의 공간구성을 살펴볼 수 있는 재료로 이용되었다(Figure 1).

내용분석으로는 석파정의 소유주의 변화에 따른 조영 관련 행적과 공간구성 등의 원형추적을 위한 관련자료 수집이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른 변형 및 소실된 대상의 위치 및 형태 등을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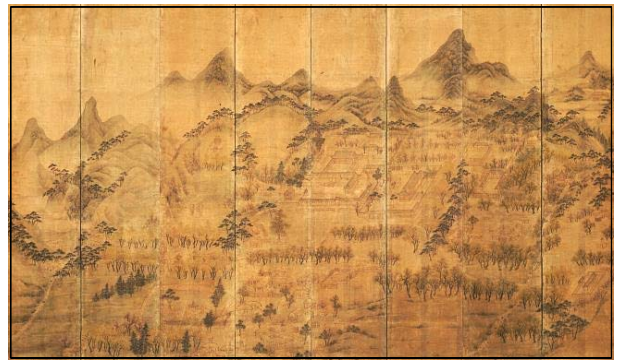


Figure 1. Seokpajeong Garden Folding Screen
Museum Associates and County of Los Angeles

Table 1. Using Literature and Painting for Analysis

Division	Literature name	Author	Production solidarity	Holding institution
Literature	Annals of the Chosun Dynasty(朝鮮王朝實錄)	-	1863-1907	Kyujanggak
	Seungejongwon Ilgi(承政院日記)	-	-	Kyujanggak
	Ilseongnok(日省錄)	-	-	Kyujanggak
	Yugwanjip(遊觀集)	Kim, Heung-Keun(金興根, 1765-1832)	The early 19c	Kyujanggak
	Yun Chi-ho's English Diary(尹致昊日記)	Yun, Chi-ho(尹致昊, 1865-1945)	1880-1940	Private collection
	Jukpayujip(竹坡遺集) Yubukhanggi(遊北漢記)	Yang, Ui-Young(梁義永, Unknown)	The mid-19c	Private collection
	Sochisilrok(小癡實錄)	Heo, Ryun(許鍊, 1808-1893)	1879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Painting	Maechunyalok(梅泉野錄)	Hwang, Hyun(黃玪, 1855-1910)	The early 20c	Private collection
	Donggwoldo(東關圖)	Dohwaseo(圖畫署)	Before 1830	KOREA University
	Seokpajeong Garden Folding Screen(石坡亭圖屏風)	Lee, Han-Chul(李漢喆, 1808-?)	The mid-19c	Museum Associates and County of Los Angeles

III. 결과 및 고찰

1. 석파정의 조영 및 소유주의 변화

석파정의 실제 조영자는 김흥근(金興根, 1765-1832)으로 알려져 있으나, 조영 시기는 현재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Chung(2005)에 의하면 한수운림암의 각자에 '한수옹서증(閑水翁書贈)'과 '신축세야(辛丑歲也)'라는 문구에 주목하여 글씨는 한수옹이라는 별호를 사용했던 인물로 권상하(權尙夏, 1641-1721)를 꼽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축년인 1721년 이전에 석파정이 조영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12]. 그러나 한수운림암 각자 외 조영에 관련된 기록은 나타나지 않으며, 현존하는 육묘정이나 중국식 정자에 대한 시설의 조영실제 또한 언급되지 않은 점은 김흥근이 한수운림암(閑水雲簾庵)을 인수하여 조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석파정의 조영 시기는 김흥근의 생애를 바탕으로 19세기로 추정되고 있으며, 『소치실록(小癡實錄)』에서의 김흥근 저택에 대한 기술이 현존하는 원림시설과 일치하고 있어 오늘날 석파정의 모습은 1866년 이전의 형태에서 기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식 정자의 도입은 외국문물에 대한 당대 사대부의 관심과 예술적 취향을 기반으로 도입된 시설이라는 측면에서 김흥근의 연행(燕行) 시기인 1837년부터 1866년 사이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규정할 수 있는 단서가 되고 있다[1].

한편, 『매천야록(梅泉野錄)¹⁾』에는 삼계동 정자로 불렸던 김흥근의 원림은 흥선대원군의 소유로 이전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13]. 이러한 배경에는 고종 즉위년부터 이어진 김흥근과 흥선대원군의 정치적 대립을 들 수 있는데 대원군이 권력을 차지한 이후 안동김씨 세력은 정계에서 배척당했으며, 특히 김흥근은 석파정을 비롯한 그의 토지가 몰수되었다. 석파정이 대원군 소유로 이전되는 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고종 4년(1867) 이후 『승정원일기』, 『일성록』에 고종이 삼계정 행궁을 방문했다는 기록 등을 통해 이 무렵을 전후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판단된다[9].

그러나 석파정은 대원군의 실정 이후 이희(李禧), 이준(李峻), 이우(李堉) 등으로 세습되어 왔으나 『윤치호 일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점차 쇠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삼계동에 계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뵈러 갔다. 창의문 밖의 촌락은 대원군의 소유이다. 지금 부모님이 임시로 묵고 계신 방들은 황제의 어머니인 대원군 대비가 사용하곤 한다. 그 별장은 좋은 위치에 있으나 관리 부족으로 급속히 황폐해져가고 있다.

윤치호 일기, 1904년 10월 28일[14]

또한 한국전쟁 이후에는 천주교 코롬바 고아원·병원 등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며[1], 오늘날에는 석파문화원의 소유로 부암동 서울미술관이 인접하여 조성됨에 따라 미술관의 부속 정원의 형태로 이어져 오고 있다. 별당채는 1985년 흥지동으로 이전되어 음식점으로 이용되고 있다.

2. 석파정 공간변화의 시기설정

석파정은 조선 시대 문신 조정만(趙正萬, 1656-1739)이 조성한 한수운림암을 김흥근이 인수하여 조성한 이래로 현재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변화된 장소로서, 석파정에서 나타나는 공간 구성의 변화는 문헌을 통해 그 변화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조영자의 개인적 성향이나 당시의 사회적 배경에 따라 변화에 폭이 크게 나타나는 원림의 특성은 석파정의 공간변화양상을 살펴보는데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원림의 소유주에 따라 3가지 시기로 분류된다. 제1기는 김흥근의 원림으로서 석파정의 조영 초기단계인 삼계동 정사로 특징지어지며, 제2기는 석파정의 소유주가 대원군으로 이전된 이후부터 대원군의 후손에 의해 세습되는 조선 말기까지를 공간변화시기의 준거로 삼았다. 제3기의 설정은 한국전쟁 이후 원림의 성격이 상류층의 향유문화보다는 고아원이나 병원 등 공공의 성격을 지니게 된 이후부터 최근 미술관에 포함된 정원으로 그 원형이 변질되어 현재에 이르는 시기에 해당한다.

3. 석파정의 공간변화과정

1) 김흥근 소유의 삼계동 정사

석파정의 조영 초기의 모습은 김흥근이 조성한 삼계동 정사로 황현(黃玹, 1855-1910)의 『매천야록(梅泉野錄)』에 의하면 원림이 위치한 삼계동은 '서울에서 가장 경관이 빼어난 곳'으로 전면에 인왕산, 북악산이 위치하고 있으며, 북한산을 배산으로 삼는 경승지로 당시 시인·묵객들이 즐겨 찾던 곳이었다. 일례로 양의영(梁義永, 생몰년대 미상)의 『유북한기(遊北漢記)』에는 1858년 북한산을 유람하는 여정의 일부로 삼계동 정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빼어난 원림의 경관을 예찬하였으며, '귀한 사람들이 숨어 지내며 수신하는 곳'으로 '매우 사치스럽고 공교롭게 만든 것' 등으로 표현하고 있어 당시 사대부층의 화려한 상류문화로서 원림이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15].

유북한기에 기술된 원림의 모습을 살펴보면²⁾ 원림의 공간구성은 내당과 외사, 결채, 창고, 마굿간 등 다수의 건조물과 품천정(品泉亭), 월천정(月泉亭), 수류운재루(水流雲在樓) 등의 정자뿐만 아니라 수각의 형태로 조성된 별도의 정자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인위적으로 조성된 수계 외에 수경시설로는 담장으로 둘러진 경계부에 돌을 깎아 연지를 조성했다는 기록이 나타나는데, Chung(2005)의 연구에서 확인된 2개의 연못터 위치로 판단되며(Figure 2) 이는 현재 원림의 경계가 모호한 석파정의 영역이 계류를 따라 담장으로 구획된 공간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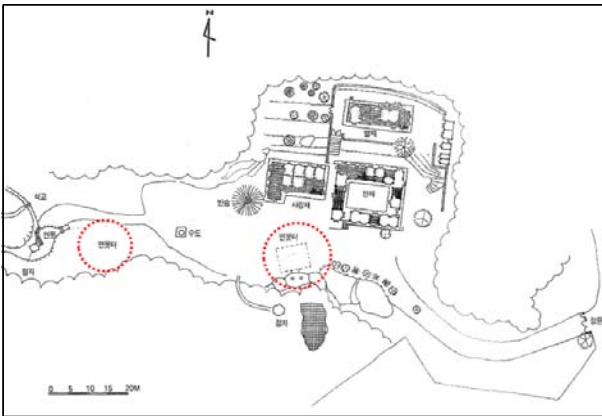


Figure 2. Pond sites of Seokpajeong Garden[12]

삼계동 정사 내부에는 아름답고 기이한 꽃들이 혼식되어 있었는데 모두 외래종으로 조선 후기 외래식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애호하였던 원림문화와 같은 맥락으로 보이며, 원림을 위요하고 있는 수림대는 과실수 또는 화목류로 이루어진 활엽수림대일 것으로 판단된다. 특기사항으로는 앵무새의 사육을 들 수 있는데, 앵무새나 원앙 등의 조류를 사육하는 행위는 중국 명(明)대 『장물지(長物志)』에서도 언급되는 내용으로, 장물지가 당대 원림문화를 종합한 유서(類書)[16]라는 점과 중국의 원림문화가 조선 후기 한양에 급속도로 보급되었던 사회적 배경 등은 삼계동 정사 내에 앵무새를 길렀던 원림문화가 김홍근의 연행에 따른 중국 원림문화 수용양상의 하나로 판단된다.

한편 삼계동 정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추가적 사료로는 『소치실록(小癡實錄)』을 들 수 있는데[17], 소치실록의 저자인 허련이 기술한 삼계동 정사의 모습은 창의문 밖 시내와 산으로 위요된 신선의 별장으로 표현되었다³⁾.

유복한기에 나타나는 공간구성과 비교해보았을 때, 외사는 '상공이 휴식하며 거처하는 곳은 현대루(玄對樓)', 라는 문구를 통해 동일한 장소임을 알 수 있으며, '시내 위에서 산책하는 곳은 곧 월천정(月泉亭)'이라는 내용⁴⁾은 김홍근이 거처하던 외사, 월천정 등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 삼계동 정사를 묘사하고 있는 두 문헌의 고증을 통해 당시의 모습을 판단할 수 있는 당위성을 지니게 된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수계에 인접하여 조성된 '육모정(六茅

亭)'과 '굽은 난간의 작은 정자'가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⁵⁾ 특히 굽은 난간의 작은 정자의 위치는 삼계동 정사 서측의 오솔길과 계류가 접하는 곳에 위치한 수중 정자로 오늘날 중국식 정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자 주변의 수계를 기술한 부분이 나타나는데, 산 중턱에 위치한 샘을 수원지로 바위를 파고 흙대 및 돌을 뜯어 조성한 도랑의 설치를 통해 수각(水閣) 아래로 흐르게 했다는 내용⁶⁾은 유복한기에서 나타나는 수경처리기법과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삼계동 정사의 주요경관시설로서 수경시설을 통한 수계의 도입을 들 수 있으며, 계류를 따라 다수의 정자를 조성하는 공간구성의 특징이 확인되었다.

식물의 사용은 기화요초가 정원에 가득하여 대문에서부터 향기가 가득하였으며 울창한 숲이 우거진 공간으로 기록되는 등 도입 수종이나 식재 위치 등을 알 수 있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나 등나무를 이용한 시령을 조성하였다는 기록만이 남아 있으며 이 외에 『유관집(遊觀集)』에는 삼계동 정사에서 조망되는 단풍나무를 소재로 하는 시문이 전해지고 있다.

山雨廉纖到夜中 산속 비 부슬부슬 한밤중에 내리나
秋暄淨似艷陽風 봄 날씨 바람 같아 가을은 따뜻하고
聊知來日溪邊路 애오리지 내일이면 냇가길 알 것이며
萬樹霜楓特地紅 온갖 나무 서리 맞아 단풍잎 특히 붉네.

『유관집(遊觀集)』, 가을비(秋雨)[18]

상기 시문에 의하면 계류에 인접하여 단풍나무를 비롯한 수림대가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유복한기에서 나타나는 활엽수림대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2) 흥선대원군 소유의 석파정

김홍근의 삼계동 정사가 대원군 소유로 이전됨에 따라 그 성격이 원림의 기능뿐만 아니라 왕가의 별장 형태로 사용되었는데, 실록에서도 삼계정(三溪亭) 또는 삼계동 행차소(三溪洞行次所)으로 지칭되었으며 고종 4년(1867년) 탕춘대(湯春臺)에서 상시사(常試射)를 행할 때에는 행전(行殿)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는 석파정의 장소성의 변경됨에 따라 화원(畫員)인 이한철의 석파정도병풍이 동궐도와 유사한 구도를 지니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대원군 소유의 석파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되고 있다.

석파정도병풍에서의 석파정은 백악산을 배경으로 계곡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림의 전면으로 수계가 통과하는 형상을 보이고 있다(Figure 3). 이는 해방직후 발간된 서울시사의 '석파정은 개울을 건너가야 한다.'는 기록[11]과 동일하게 나타나

는 것으로 보아 일제강점기까지 수계의 형태가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으며, 대원군 당시의 석파정은 수계를 경계로 하는 영역성을 지니고 있어 현재 석파정의 면적은 상대적으로 축소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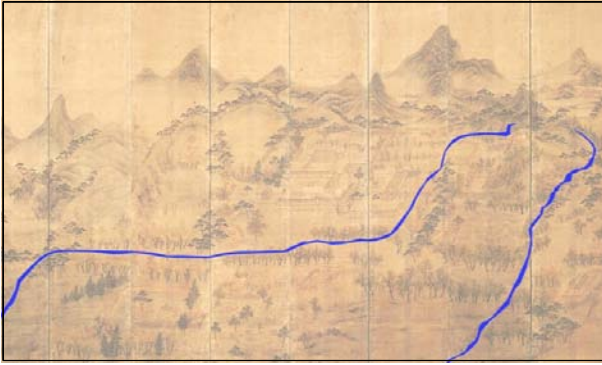


Figure 3. Water system in Seokpajeong Garden Folding Screen
Museum Associates and County of Los Angeles

석파정은 안태각(安泰閣), 낙안당(樂安堂), 망원정(望遠亭)·유수성중관풍루(流水聲中觀風樓) 등 8채의 건조물로 구성되어 있다[19]. 이는 김홍근 소유 당시 원림을 소유하고자 했던 대원군의 애착이 반영된 결과로 현대루나 월천정 등 건조물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뿐 조성된 다수의 건조물을 준용한 형태로 보인다.

그림에 나타난 공간구성은 대문을 기점으로 마당이 있고 오른쪽에 넓게 두른 곳이 사랑채에 해당하며 마당에서 단을 조성한 'ㄷ'자 형태의 안채와 그 뒤쪽으로 가장 높은 곳에 별채가 후원과 함께 조성되어 있다.

앞마당에서 왼쪽의 협문을 통해 진입하도록 조성된 석파정 별당은 벽돌로 담을 쌓고 난간을 두른 중국식 건축물로 후면에는 방지원도가 조성되어 있으며, 별당과 인접하여 그려진 소나무는 오늘날 석파정 사랑채 서측에 위치한 노거수로 보여진다(Figure 4). 또한 석파정 별당 후면의 방지원도(Figure 5)는 홍지동으로 이진된 별당의 위치를 고려해보았을 때, Chung(2005)의 연구에서 제시된 연못터와 상응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4. Pine tree west of Sarangchae



Figure 5. Byeoldang Villa and pond

특기사항으로 현재 석파정에 위치하고 있는 중국식 정자는 사각형의 정자로 곡계(曲階)를 설비하고 바닥을 대리석으로 마감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석파정도병풍에는 별서의 오른쪽 계류 위에 그려진 정자로 판단된다. 정자의 상대적 방위가 석파정의 동측에 위치하고 있어 오늘날의 중국식 정자의 위치와는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계류에 인접한 사각형 정자로 후면의 언덕부에서 유입되는 수계와 연결되어 있으며 주변이 수림대로 위요되어 있는 입지적 형태는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Figure 6. Location of Chinese pavilion in Seokpajeong Garden Folding Screen
Museum Associates and County of Los Angeles

a: Estimated position of CHinese pavilion in Seokpajeong Garden Folding Screen
b: Estimated position of CHinese pavilion in current Seokpajeong Gard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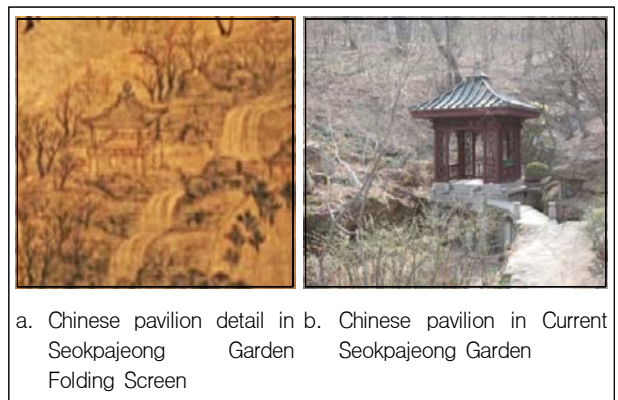


Figure 7. Seokpajeong Garden Folding Screen of the Chinese pavilion and the current Chinese pavilion

이 외에도 현재 석파정의 'ㄷ'자 안채 서측에는 'ㄱ'자 형태의 사랑채가 위치하고 있는데 석파정도 병풍에는 'ㄷ'자형 안채만이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점은 공간구성 상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석파정도병풍의 제작자가 명확하고 안채와 별당채, 후원의 별채 등 공간구성이 실제와 동일하게 나타나는 점에서 기록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는 전제하에 석파정의 사랑채가 현재의 모습으로 이전되었을 가능성을 도출할 수 있다.

유복한기에 의하면 ‘동쪽에는 수류운재루(水流雲在樓)가 있는데, 처마 앞에는 앵무새를 키우고 있다. …중략… 담장은 모두 무늬있는 돌로 쌓았는데…’ 라고 밝히고 있어 석파정도병풍에서의 우측 건조물이 수류운재루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앵무새를 키우거나 담장에 무늬가 있는 돌을 쌓는 등 원림 내 공간의장에 가장 주된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석상이나 분재 등 다수의 조경시설물이 석파정도병풍에서 확인되는 점은 수류운재루가 사랑채로 판단된다(Figure 8).



Figure 8. Space arrangement of Buildings in Seokpajeong Garden Folding Screen

Museum Associates and County of Los Angeles

또한 석파정 별당채가 전돌을 전돌을 도입한 독특한 건축양식을 지니고 있는데, 석파정 사랑채와 별당채와의 관계는 동궐도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조물로서 수방재(漱芳齋)·문화각(文華閣)을 들 수 있다(Figure 9)[8]. 순조 대 대리청정을 맡았던 효명세자가 수방재·문화각과 함께 영연합 등을 신축하면서 궁의 분위기를 바꾸는데 기여했다는 해석은[20] 석파정이 왕족에게 귀속된 원림으로 격상되었고 대원군의 애착이 지대했던 만큼 궁궐 내 양식에 대한 도입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며 실제로 석파정 내부의 협문이 덕수궁의 협문이나 운현궁의 경근문과 유사한 점, 별채에 새겨진 동물무늬 등은 이를 뒷

받침하는 사례로 이러한 결과는 김홍근 대부터 이어져오던 공간구성이 석파정도병풍이 그려진 19세기 중엽 이후 사랑채가 이전됨에 따라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Figure 9. Subangjae and Moonhwagak painted on the Donggwoldo[8]

3) 근대 석파정 소유변화에 따른 원형의 변질

근대에 이르러 석파정의 공간변화는 서울미술관의 건립전후를 기점으로 다시 분류할 수 있다. 서울미술관 건립 이전의 석파정은 흥선대원군 실정 후 후손에게 이어져왔으나 한국전쟁 이후에는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코롬바고아원’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시아식’병원으로 용도가 변경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멸실 위기에 처했던 석파정 별당채를 1958년 소전 손재형 선생이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다(Figure 10).



Figure 10. Seokpaeong Byeoldang Villa in those days of Coromba orphanage[8]

1976년 12월 27일 경향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1966년 한 실업가가 석파정을 매입하였으며, 재벌가에 의해 그 소유권이 다시 이전되었다고 밝히고 있다[21]. 이와 같이 석파정은 김홍근과 관련된 안동김씨나 흥선대원군의 후손이 아닌 개인의 토지로 그 소유권이 수차례 변경되면서 관리소홀로 인해기둥이 썩어가고 기왓장에 잡초가 자라는 등 이전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

어 왔으며 1996년 동인문화원에서 석파정을 매입하고 수리함에 따라 생활사박물관 형태로 일반에 공개하고자 하였으나 원형 고증의 문제로 무산되었다[22]. 이후 석파문화원에서 1997년 다시 석파정 일대를 매입하였으나 이전 소유자와 개인 간 부채 문제로 소송에 휘말렸고, 석파정이 경매에 부쳐지는 등 [23]의 분쟁이 지속됨에 따라 훼손된 채로 이어지고 있었다.

선술한 바와 같이 석파정은 흥선대원군이 소유하던 시기 이후 점차 원형이 변질되었다. 다수의 건조물이 조성되었던 이전 시기와는 달리 사랑채, 안채, 후원의 별채, 중국식 정자만이 남아있게 되었으며, 담장으로 위요된 공간 또한 소실되었다. 진입 공간에 해당하는 대문채는 대문만이 남아 있으며, 대문의 동측 일대의 지형은 절토된 채로 방치되었다(Figure 11).



Figure 11. Damaged the original form to Seokpajeong Garden in 2006[23]

이후 2012년 석파문화원에서는 서울미술관의 건립과 함께 석파정을 민간에 공유하였는데 이에 따라 진입 동선이 미술관 건물로 연결되고 기존의 대문채가 사라지는 등 미술관의 부속 정원의 성격을 지니게 되면서 추가적인 원형의 변질이 발생되었다. 석파정 안채의 동측은 잔디밭으로 조성되었으며, 계류 건너편의 신라시대 석탑은 경주 근처 개인 소유의 경작지에서 수습하고 조립한 것으로[24] 2012년 석파정으로 이전 설치되는 등 기존의 원림과는 이질적인 성격의 공간 및 시설물이 도입된 채 부대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4. 종합고찰

소유주의 변화에 따른 석파정의 공간구성 중심의 변화양상을 고찰한 결과, 다수의 건조물이 경영되었던 김홍근 소유의 삼계동 정사와 대원군 소유의 석파정은 근대에 이르러 소유주



a. Previous form of Seoul Museum in Seokpajeong Garden(2008)



b. Seokpajeong Garden after construction of Seoul Museum(2014)

Figure 12. Change of Seokpajeong Garden by construction of Seoul Museum[25]



Figure 13. Watching movements of Seokpajeong garden in Seoul museum[24]

가 수차례 변경되고 이에 따라 넓은 면적 대비 관리 소홀로 인한 원형의 훼손이 발생되었다. 이에 따라 원형 회복을 통한 복원 및 복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사료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과거 조성되었던 건조물의 명칭조차 모호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차후 진정성을 확보한 석파정의 복원을 위해서는 도시화에 따라 축소된 석파정 영역의 환원과 원림의 영역을 한정하고 주요 조망점이 되었던 수계 및 연못의 복원은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서울미술관의 부대시설 탈피 및 문헌의 고증 및 사료의 발굴을 통한 진입동선의 복원, 건조물의 복구

등의 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

IV. 결론

본 연구는 석파정의 공간변화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원림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공간의 특성을 시기별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변화양상을 파악하고자 관련 문헌 및 도상자료, 기사, 사진 등의 분석을 통해 각 시기별 변화양상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석파정의 조영실체 및 소유주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공간변화과정의 시기구분은 공간입증사료를 근거로 3시기로 분류하였다. 1기는 석파정의 근간이 되는 김홍근의 삼계동 정사를 조영하는 시기에 해당하며, 이후 원림의 소유권이 대원군으로 이전됨에 따라 왕족의 별원 형태로 장소성이 격상되는 시기를 2기로 분류하였다. 3기는 석파정의 원형이 변질되는 시기로 한국전쟁 이후 고아원, 병원 등으로 이용되기도 하였으며 석파문화원 소유로 서울미술관 부대시설의 하나로 포함된 현재까지를 포함하였다.

둘째, 김홍근 소유의 삼계동정사는 계류를 중심으로 원림의 영역을 한정하고 수경관을 주요 조망지점으로 다수의 건조물과 정자를 경영한 시기로 볼 수 있으며 중국풍 정자 및 별당채의 도입 등 외래문물의 수용양상과 함께 기화요초를 다수 식재하였다. 또한 문헌에서 나타나는 연못에 대한 기록은 기존 연구에서 언급된 연못터에 대한 발굴의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석파정도병풍에서 나타나는 흥선대원군 소유의 석파정은 기존 삼계동 정사의 건조물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이나 공간의장이 집중되는 사랑채 위치의 상이함은 석파정도병풍의 제작 이후 현재의 위치로 이전되었을 가능성 또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중국식 정자의 표현위치와 함께 이에 따른 추가적인 문헌의 고증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근대의 석파정은 잦은 소유주의 변경에 따라 이전시기에 비해 상당부분 원형에 훼손되었고 지형이나 수계뿐만 아니라 건조물 또한 사랑채나 안채, 후면의 별원만이 남아있으며, 오늘날 원림유적이라기보다는 서울미술관의 부대시설로 전락하여 이에 대한 환원과 함께 원형복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삼계동 정사로서 석파정의 조영초기의 공간특성이 주로 다루어진 기존연구의 내용뿐만 아니라 국외소재의 석파정도병풍의 사료적 가치를 도출하고 공간특성을 살펴보았으나 현재의 석파정의 모습이 상당부분 변질되었고 석파정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밝혀진 기록이 매우 한정적이며 이 또한 문헌의 해석이나 고증에 대한 불확실성이 연구의 한계점으로 도출

되었다. 따라서 향후 석파정에 관련된 연구는 기존 문헌자료의 보완 및 사료의 추가적 발굴을 통한 공간변화과정의 경위 및 그 요인을 살펴보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 1) 김홍근은 북문 밖 삼계동에서 장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장을 소유하고 있었다. 대원군은 그의 별장을 팔 것을 요구했지만 김홍근에게 쇠귀에 경 읽기였다. 그래서 대원군은 하루만이라도 빌려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그러자 김홍근은 대원군의 강권에 어쩔 수 없이 허락하였는데 대원군은 고증을 청해 이곳에 함께 왔다. 얼마 후 고종이 함께 다녀갔다는 말에 김홍근은 이렇게 푸념했다. "상감이 와서 놀다간 곳은 감히 신하가 놀 수 없다." 이 말과 함께 이곳에 출입하지 않으면서 결국 대원군의 소유가 되었다.

주 2) 무오년(1858년, 철종 9년) 가을에 나는 서울의 집에 몇 달 머물러 있으면서 장차 북한산(北漢山)을 오르려고 하였다. 8월 16일 자흥(子興) 조한승(曹漢承), 원견(元見) 조석옥(曹錫膺)과 더불어 장의문(彰義門)을 나와서 수십 무(武)를 가니 삼계동(三溪洞)이 나왔다. 영부사(領府事) 김흥근(金興根)의 산정(山亭)이 있다. 정자의 규모와 주위의 천석(泉石)이 매우 크고 아름다웠다. 정자는 모두 9, 10칸 정도 된다. 내당, 외사(外舍), 곁채, 창고, 마굿간 등이 반듯반듯하게 구비되었는데, 유관(遊觀)으로 편액을 하였다. 동쪽에는 수류운재루(水流雲在樓)가 있는데, 처마 앞에는 앵무새를 키우고 있다. 동줄로 두 다리를 묶어 잣으로 먹이를 준다. 담장은 모두 무늬 있는 돌로 쌓았는데, 담장 안의 몇몇 곳에는 돌을 깎아서 연못을 만들어 연을 심었다.

계단과 처마 사이에는 아름답고 기이한 꽃을 섞어 심었는데 모두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는 것이다. 앞뒤의 산등성이에에는 모두 꽃과 과일나무를 심어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다. 앞산으로부터 산의 모퉁이를 넘어 산을 뚫고 돌을 깎아내며 나무를 파서 물통 홈을 만들어 물을 끌어들이어 정자 앞에 돌로 된 계곡에 대고 있는데, 팔팔 소리를 낸다. 그 나머지 품천정(品泉亭), 월천정(月泉亭)은 모두 한 칸의 정사(精舍)이다. 앞에는 '소수운림암(巢水雲簾巖)' 다섯 글자를 새기었다. 내가 보기에, 귀한 사람들이 숨어 지내며 수신하는 곳으로 생각된다. 매우 사치스럽고 지극히 공교롭게 만든 것은 그 유관(遊觀)을 비교할 것이 없다. 일찍이 곧은 절개로 현묘조(憲廟朝)에 상소를 올렸다가 광양(光陽)으로 유배를 가니, 먼 지역의 선비들이 그 소문을 듣고 대단히 존모하였다. 지금 산정(山亭)을 보니 역시 다르다.

주 3) 작년 관동날 저녁 구경할 때에 김상공(金相公)이 나를 데리고 삼계동(三溪洞)의 산정(山亭)에 들어갔습니다. 동네는 창의문(彰義門) 밖에 있었지요. 시내와 산은 깊숙하고 숲은 울창했으며 정자와 대(臺)의 정치는 흡사 신선의 별장이었습니다.

주 4) 상공이 휴식하며 거처하는 곳은 바로 현대루(玄對樓)요, 시내 위에서 산책하는 곳은 곳 월천정(月泉亭)이었습니다. 현대루 서쪽에 따로 집 한 채를 지었는데 중국식을 모방한 것이었습니다.

주 5) 집의 서쪽에서 한 쪽 문을 따라 나오면 육모정(六茅亭)이 시냇물 소리 나는 나무 사이에 나타납니다. 오솔길을 따라 걸어가니 굽은 난간의 작은 정자가 물이 흘러 소리 나는 곳에 떠 걸려있었습니다.

주 6) 시내의 근원을 더듬어 산에 올라가니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한 샘이 있었습니다. 바위를 파서 홈대를 만들었고 돌을 뚫어 도랑을 만들어 이를 끌어들이어 수각(水閣) 아래에 흐르게 했습니다. 거기에 들인 공을 생각한다면 죽히 수천금은 소비했을 것입니다.

REFERENCES

[1] Lee, W. H., Lee, J. S. and Kim, Y. K.(2006). A Basic Study on the Planning and the Space Composition of Sukpajung.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24(1):21-31
 [2] Yoo, B. R., Hwang, K. W. and Park, J. H.(1989). The Original Form of the Joseon Dynasty Garden, Environmental Planning Institute of

-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3] Lee, J. K.(1992). A Study on the Retreating Villa (Byeol Soe) Garden in Choson Dynasty. Doctorate thesis of Sungkyunkwan University, Suwon, Korea
- [4] Chung, J. H.(1996). Garden of Korea Traditional. Publishing Landscape architecture: Seongnam, Korea.
- [5] Jongno gu office(2010). Precision Measurement Report of Sukpajung
- [6] Jongno gu office(2011). Precision Measurement Report of Seokpajeong Byeoldang Villa and Pyeongchang-dong Singak of Bohyun-mountain
- [7] Ahn, D. H.(2012). A Study on the Wall of Seokpajeong Garden(石坡亭) and Seokpajeong Byeoldang Villa. Journal of Architectural History. 21(6):95-100
- [8] Kim, Y. M.(2012). Recovery of Original Form in Seokpajeong Byeoldang Villa. Journal of Architectural History. 21(5): 96-109.
- [9] Kim, M. R.(2008).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Gardens Built by the GyeongHwaSaeJok. Master's Thesis of Gachon University, Seongnam, Korea.
- [10] Lee, W. H., Kim, D. H., Kim, J. U. and Shin, H. S.(2014).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 of Garden through Okhojeong Garden(玉壺亭) And Seokpajeong Garden(石坡亭) in the 19th Century Seoul.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32(3):21-31
- [11] Hong, H. S. and Lee, W. H.(2006). Landscape Approach to Poetry Hanghae Hong Giljo's Sooksoonyum(孰遂念).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24(3):67-78
- [12] Chung, J. H.(2005). Korea's traditional garden. Publishing Landscape architecture: Seongnam, Korea.
- [13] Hwang H., translator Jung, D. O.(2011). Maecheonyarok(梅泉野錄). Jimun : Seoul, Korea.
- [14] Yun, C. H., translator Song, B. K.(2000). GukYeok Diaries of Yun chi-ho. Modern korean studies : Seoul, Korea.
- [15]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2005). Encyclopedia of Cultural Prototype Travel account of mountain.
- [16] Chen, Y. H., Shin, H. S., Lee, W. H., Kim, D. H., Kim, J. W., Cho, W. Y.(2014). The Study on the Landscape Gardening Traditions of Jangmulji compiled by Mun, jin-hyung. Autumn Conference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67-72
- [17] Heo, Y., translator Kim, W. H.(2000). Sochisilrok. Seomundang:Paju, Korea.
- [18] <http://mblog.daum.net/blog/m/articleView.do?blogid=CFUq&article=1264134>
- [19] Seoul Metropolitan City(1987). Seoul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Seoul Metropolitan City : Seoul, Korea
- [20] Kim, D. O.(2007). History of Korean Architecture. Kimondang:Seoul, Korea
- [21] The Kyunghyang Shinmin press news 1967. 12. 27.
- [22] The Kyunghyang Shinmin press news 1997. 11. 1.
- [23] The Segye Times press news 2006. 1. 11.
- [24] Seoul Museum Homepage <http://www.seoulmuseum.org/>
- [25] Daum map <http://map.daum.net/>

원 고 접 수 일: 2015년 3월 06일

심 사 일: 2015년 3월 10일(1차)

게 재 확 정 일: 2015년 3월 10일

3인 익명 심사필, 1인 영문 abstract 교정필